



성황리에 펼친 천송재단 주최 2024 세계합창제

롯데콘서트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 8시

재단법인 천송재단이 올해 2월 2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2024 세계합창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재단법인 천송재단(이사장 겸 예술감독 김희철)은 2015년에 제주도에에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제주의 문화예술 발전과 국제예술 축제 및 공연 등을 기획하여 주최·주관하는 음악재단이다. 본 연주회는 제주에서 2월에 개최된 제주국제합창축제 앤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해외 저명한 합창단들이 참여하여 제주에서 선보였던 최고의 합창무대를 서울에서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4 세계합창제에 함께한 합창단으로는 미국 미주리대학합창단(Missouri State University Chorale), 인도네시아 미나하사명가라남성합창단(Minahasa Tenggara Male Choir), 에스토니아국립대학교합창단(Choir of Estonian Academy of Music and Theatre), 필리핀 캄머코어마닐라(Kammerchor Manila),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트비아 콰이어발타(Choir Balta)까지 총 5개의 해외합창단이 참여했다. 국내합창단으로는 SBS 싱포골드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클라시쿠스, 한국 대표 소년소녀합창단인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국내 유일 국제물류기업 사내합창단인 웅스 콰이어까지 총 3개의 국내합창단이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특

별출연으로 중국에서 대련고전예술단이 참여하여 전통악기들로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음악회는 재단법인 천송재단에게 의미 있는 공연이다. 창립 9년차를 맞이하여 국내외 우수한 합창단을 섭외해 2024 세계합창제라는 대규모 합창공연 개최함으로써 천송재단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유럽, 북미, 아시아 최고의 합창단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음악을 선보이고 문화를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었다. 특별히 마지막 연합합창 무대로는 한국의 대표적 인 합창작곡가 이현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음악원장을 역임했던 작곡가 이영조의 곡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첫 곡으로는 이현철 작곡가의 'Peace'를 부르고 두 번째 연합곡으로는 이영조 작곡가의 'Pacem'으로 피날레를 장식해 연주자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음악회였다. 빈야드 공연장의 특징으로 무대 양쪽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 관객들도 마지막 연합합창곡을 함께 부르는 무대를 선보여 더 의미 있고 감동이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

천송재단 홈페이지: www.chunsong.org